

-(으)ㄴ/는 듯하다

~한/는 듯하다 — 추측, ~인 것 같다

다음의 문어체 버전입니다: 것 같다 문법도 의미도 같지만 보고서, 기사, 격식 있는 글에 어울립니다.

■ 결합 방법

단어 종류	형태	예
동사, 현재	-는 듯하다	오다 → 오는 듯하다
동사, 완료	-(으)ㄴ 듯하다	가다 → 간 듯하다
형용사	-(으)ㄴ 듯하다	좋다 → 좋은 듯하다
앞으로의 일	-(으)ㄴ 듯하다	올 듯하다
ㄹ로 끝남	ㄹ 탈락	만들다 → 만드는 듯하다
다른 말	-듯이 = 마치 ~처럼	아는 듯이 말했어요

■ 언제 쓰나요

형태는 관형형 체계를 것 같다와 똑같이 따릅니다. 동사는 -는 듯하다, 형용사는 -(으)ㄴ 듯하다, 완료된 동작은 -(으)ㄴ 듯하다, 앞으로의 일은 -(으)ㄴ 듯하다를 씁니다. ㄹ 어간은 ㄹ이 탈락합니다.

것 같다와의 차이는 오직 문체입니다. 듯하다는 신중하고 약간 문어적으로 들려서 뉴스 기사나 격식 있는 보고서에 자주 씁니다: 시장이 회복되는 듯하다.

다음 표현들과 달리: 모양이다, 나 보다 — 이 표현은 자신에 대해서도 쓸 수 있습니다. 것 같다와 마찬가지로.

관련 표현에 주의하세요: -듯이 이것은 ‘마치 ~처럼’이라는 뜻의 다른 구문입니다: 아는 듯이 말했어요.

■ 예문

- 1 시장이 서서히 회복되는 듯하다.
- 2 그는 이미 사실을 알고 있는 듯했다.
- 3 이번 결정은 성급한 듯합니다.
- 4 내일은 비가 올 듯합니다.
- 5 직접 만든 듯한 맛이 났어요.
- 6 표정을 보니 결과가 좋지 않은 듯해요.

■ 비교

-(으)ㄴ/는 것 같다
문법은 같고 문체가 다릅니다. 것 같다는 말할 때, 듯하다는 글을 쓸 때 씁니다. 가벼운 대화에서 듯하다를 쓰면 책을 읽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.
비가 오는 것 같아요. (구어) / 비가 오는 듯하다. (문어)

-(으)ㄴ/는 모양이다
모양이라는 외부 근거가 필요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쓸 수 없습니다. 듯하다는 두 제약이 모두 없어서 더 유연합니다.
제가 실수한 듯합니다. (자신에 대해 가능) / 제가 실수한 모양이에요. (틀림)

-듯이
‘마치 ~처럼’이라는 뜻의 별개 구문입니다. 주장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 방식을 꾸밉니다.
아는 듯하다. (아는 것 같다) / 아는 듯이 말했다. (아는 것처럼 말했다)

■ 주의

- ✗ 이번 결정은 성급하는 듯합니다.
- 이번 결정은 성급한 듯합니다.
성급하다는 형용사이므로 -(으)ㄴ을 씁니다. -는은 동사에 씁니다.
- ✗ 부엌에서 뭘 만드는 듯해요.
- 부엌에서 뭘 만드는 듯해요.
관형형 체계 전반에서처럼 ㄹ로 끝나는 어간은 -는 앞에서 ㄹ이 탈락합니다.
- ✗ 야, 비가 오는 듯해.
- 야, 비가 오는 것 같아.
듯하다는 글과 격식 있는 말에 어울립니다. 친구 사이에서 쓰면 어색하게 문어적으로 들립니다.